

- 차별에 처항하리!!
-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호 상호골든프라자 404호 / TEL : 031-377-1145 FAX : 031-377-1147  
 e-mail : \*\*\*\*\*@jinbo.net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g420

수신	각 언론사, 장애인 단체, 사회단체
참조	담당자
제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붙임자료 : 선관위 회신내용 3장)
일자	2012. 3. 16.
담당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경남(**-**-****)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  
**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 일 시 : 2012년 3월 19일 [월] 14시
- ▶ 장 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 ▶ 참여단체 :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기화성지회  
 경기교육운동연대 품  
 경기IL통합네트워크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 ▶ 주 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당사자단체입니다.
- 헌법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을 위하여
  - 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방송의 점자·문자 안내
  - ② 점자투표지의 배급
  - ③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방식의 안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투표소의 접근조차 거부당하며,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2층 투표소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공익요원을 통해 들어 올리겠다고 하여 중증장애인은 1층에 임시투표소 설치요구를 하며, 6시간의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 2010년 경기북부에서도 경사로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했고, 경기남부 모 초등학교에서는 널빤지를 계단에 놓고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고정식이 아니어서 휠체어가 올라가기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장애로 인해 접근조차 거부당하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예산의 문제를 특정 계층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 이는 명백히 독립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 여기며, 경기장차원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하였고 그 회신 답변을 지난 3월 13일 받은바 있습니다.(붙임 자료. 첨부)
  
- 3월 15일 경기도선관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는것이냐는 경기장차원의 질의에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에 각 단체 및 언론사에 경기도선관위의 답변을 공개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선관위의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 귀 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 회견문】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치인이 장애인을 앞세우며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선거가 있었음에도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은 예산의 논리로 철저히 배제되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올해,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과 유권자 불편해소를 중점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싶다. 그러나 과거가 그러하지 못했다. 모양만 갖춘 경사로에 안전을 위협받고, 기본적 편의시설이 없어 투표소 접근이 거부당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시혜적 차원과 예산의 논리로 농락당하는 기본적 권리에 침묵할 수 없다.

단 한사람이라도 장애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참정권을 지켜낼 것이다.

-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 선관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하라!
- 장애인도 국민이다. 참정권 보장하라!
- 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경기도선관위 회신내용